

서울반도체, LED조명 중국진출로

IBK투자, 고가제품 중국수출로 매출신장 기대 ... IT는 비수기 진입

서울반도체가 LED(Light Emitting Diode) 조명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IBK투자증권은 서울반도체의 4/4분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투자의견 <매수>에 목표주가 5만원을 유지했다.

어규진 연구원은 “서울반도체의 4/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.5%, 영업이익은 26.8% 감소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”며 “4/4분기에는 IT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다만, “LED조명을 포함해 IT를 제외한 부분의 매출액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”이라며 “중국 가로등에 AC(교류)방식 아크리치2가 적용된 LED조명을 공급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아크리치2는 다른 LED조명보다 수익성이 높은 편이어서 4/4분기 매출은 3/4분기보다 5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2/06>